

완도 해조류 가치 재조명 블루카본 국제인증 모색

국회서 100여명 참석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포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외해 대량 양식 방안 등 논의

완도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바이오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완도군과 한국해양바이오화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조류가 지닌 블루카본으로써의 가치 재조명과 블루카본 인증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국내 해조류 양식의 지정학적 우수성을 활용한 대량 양식 활성화와 해조류 특화 해양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대 김태훈 교수는 '완도 해조류 양식의 지정학적 우수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완도는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담수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웅 KIOST 책임연구원은 '외해 해조류 대량 양식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해상 풍력과 결합한 외해 해조류 양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외해 대규모 해조류 양식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수 포항공대 교수는 '해조류 활용 해양바이오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해조류는 식용을 넘어 의약, 화장품,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며 "블루카본 인증과 연계해 해조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국제인증을 받게 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 등 환경적인 측면, 해양바이오산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블루카본의 보고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노력과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조류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조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포럼'이 열렸다. <완도군 제공>

목포문화원, 한시문집 '목포풍아집 보유(補遺)' 발간

목포문화원(원장 박창식)이 최근 한시문집인 '목포풍아집 보유(補遺)'를 발간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지원하는 2024 시군 역사문화자원발굴사업의 하나인 '목포시사 보존 한시 번역 및 발간'으로 추진하게 됐다.

목포문화원은 지난 2012년 근현대 문학결사체인 목포시사(木浦詩社)가 1965년 발행한 역대 한시문집인 '목포풍아집'을 번역 발간한 바 있는데,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한시 원고와 지난 2023년 목포시사에서 문지 채로 다량 발견됨에 따라 이를 분류 정리하고 이 가운데 700여 수를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는 '목포풍아집' (2012), '호남보인사교' (2020)를 번역 출간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박창식 목포문화원장은 "이번 발간과 향후 다양한 인문·#11825; 학술행사 등을 통해 향교나 서원이 없는 목포지역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목포시사의 정신사적 의의는 물론, 문향 목포 문학의 원류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정병선 기자 jbs@kwangju.co.kr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진도군 중지자 등 재조사 변경기준 적용 권리구제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에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2025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선정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일일재산 12억원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등이다.

진도군은 해당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선정이 가능한 타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력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박물관·미술관 8개소 대상 신안소방서 화재 안전조사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 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한다. <사진>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계획 수립 · 소방훈련 실시 여부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방화구획 ·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나연운 신안군 예방안전과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개선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화재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경영시스템·기술 능력 등 공인

목포시는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사진)가 최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이다. KOLAS 인정 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영향



을 공인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KOLAS 인정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시 수출국의 규정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발행

할 수 있게 된다.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 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센터가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식품분야 3개 항목(납, 카드뮴, 비소), 미생물 분야 3개 항목(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으로 총 6개 항목이다.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이사장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원전 주변 주민·기업 금융지원 영광군 10월20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기업을 저리로 지원하는 '2025년 주민복지·기업 유지용자사업' 신청을 10월20일까지 접수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또는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대출 한도는 주민·사회 초년생 2000만원, 기업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1%에 2년 거주 3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기존 배점표에 명시된 사업 우선순위를 적용해 결정한다. 올해 사업비는 6억6400만원으로 한빛원전이 소재한 주변 지역인 백수읍·홍농읍·법성면에 우선 배정하고 남은 사업비는 그 외 지역에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농협중앙회 여신 규정상 융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예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2월호

2025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뿌리 깊은 문화 파워 K-헤리티지

-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한국 브랜드로 사랑 받는 5대 고궁, 중요
- 아는 만큼 보이는 광주·전남의 문화유산

문화 화제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3인 인터뷰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근대 사적지 옆 이강하 미술관
이강하 컬렉션 모태... 남구 첫 1층 공립미술관

맛과 함께
화순 여행
개미산부
만연산술
환산정길

예향 초대석
보성 두달살이, 『미생』 시즌3 연재 앞둔 작가
윤태호
"인생에 완성은 없다. 꿈꾸면서 나아가길"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바다 향 가득 남도 겨울 맛기행

해외문화기행
천재 예술가의 아우라
바르셀로나 피카소미술관

호남의 누정
광주 교산정
늘 푸른 대나무 많은 선비의 절개와
아이들의 호심 깃든 정자

문화계 소식
올해 광주·전남
준비 중인 공연 라인업

화제의 문화 현장
올해는 우리 집에 작품 한 점 걸어요
동구미술은행 컬렉션 '동구동락'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370년 씨간장' 들고 유네스코 다녀온
진장 명인, 기순도